

# 양안 한국어교육연구교류의 형식 및 방안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김병운

서론: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져왔고 또한 많은 교수법이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국어교육이란 학습자대상에 따라 교재도 달라야하거니와 교수법도 달라야 한다. 대륙의 한국어교육과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다 같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실제 교육에서 부딪치는 문제로부터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공통된 언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안 간 한국어교육연구의 교류는 상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안 간의 정치적 대립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상호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양안 간의 교류도 예전에 비해 활기를 띄고 있다. 그간 대만의 일부학자들과 대륙의 일부학자들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각각 대만이나 대륙에 가서 학술교류활동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그 규모나 회수로 놓고 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늦기는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양안의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학술적인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학술교류,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및 참고서교류는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 간의 한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안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봄과 함께 앞으로의 학자교육, 학술교류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학습자료 교류, 참고서교류 및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공동개발 등 여러 면으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어교육연구의 현황 및 양안교류의 필요성

중국 대륙의 한국어교육은 올해로 65 년을 맞아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연구는 1992 년 중한 수교 이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걸친 다방면의 교류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놀라운 속도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최초의 남경외국어전문대에 한국어학과 개설 된 뒤로 부터 50-60 년대의 3 개 대학교에, 70-80 년대 5 개 대학교에, 90 년대 27 개 대학교에, 2000 년대 54 개 대학교에, 그리고 2010 년도에는 98 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됨으로써 그 규모가 백배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4 년제 본과에 대한 통계이고 3 년제나 2 년제까지 합친다면 201 개 학과에 달한다. 한국어는 이제 대륙에서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이어 **여섯 번째**로 꼽히는 외국어로 부상을 하였데 오래지 않아 영어, 일본어와 같은 통용어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륙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90 년대 중반기부터 점차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약 700 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들을 여러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에 매우 큰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간 대륙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습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습과 교수에 필요한 참고서나 사전류들도 많이 개발되어 한국어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간 한국어교육과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어 교육·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골라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은 한국어 교수의 자질 향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전과 비해 보면 전반적으로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특히 90 년대 중 후반기부터 2000 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한국어교육규모가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무분별하게 한국어학과의 교수들을 받아들여 채용함으로써 교수들의 자질이 학습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교수 중의 상당수는 한국에 유학을 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있으나 교육 경험의 부족으로 학습자들의 요구나 한국어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의 질적 요구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소속 대학교나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의 교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별하여 충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아직도 박사학위 소지자는 고사하고 석사학위 소지자조차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자질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신도 한국어를 제대로 숙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젊은 교수들의 자질 향상 문제는 한국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지금 꼭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륙의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학습 자료 문제이다. 90년대 중 후반에 들어서서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대륙에서는 많은 학습 자료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학습 자료들은 학습자는 물론 교수들에게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출간된 학습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 중 적지 않은 학습 자료들은 과학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학습자나 교수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가 우선 심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교재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기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총론적인 접근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전체 연구 흐름을 보면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에서 교재 분석이나 교재 평가 그리고 학습자 요구 조사 등 세부적인 연구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교재 관련 연구 주제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체계 있고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못하다. 셋째, 교재 연구는 새로운 교재 개발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 교재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 다만 새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만 있다는 인상을 안겨 주고 있다. 넷째, 이미 출판된 교재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냉정한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이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 대륙의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해온 교수법은 교수·학습 목적이나 교육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문법-번역식으로부터 점차 청각구두식, 그리고 의사소통식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에 들어 외국어 교육이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는 한국어 교수법에도 아주 큰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기 들어서부터 서방의 여러 외국어교육법들이 소개되면서 한국어교육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인 모방에 불과하며 중국인 실정에 알맞은 그렇다 할 한국어교수법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륙의 한국어교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점이라면 언어 교육 연구에 비해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술 때마다 문학을 이용한 교육이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다 할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문학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재 편찬, 교수법, 평가 방법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이외에도 한국어학습 보조 자료연구 개발, 학습용 참고서연구개발, 교육평가 등 여러 문제들이 많다.

대만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해는 2002년도 정치대학교 채런강교수가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의 초청으로 연례학술대회에 와서 소개해 준 내용이 고작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의 소개에 의하면 대만도 대륙과 같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대만의 문화대학교와 장치대학교를 제외하고도 한국어강좌를 개설한 대학교거나 학원도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다.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대륙보다 그 개설 시기가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대륙보다 일찍 개방을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서 서방의 선진적인 교수법들이 일찍 많이 소개되어 들어왔고, 또한 대륙보다 일찍 한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까닭에 적지

않은 면에서 대륙보다 앞서 가리라 생각된다. 특히 대륙의 한국어교육이 현재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과 과제들은 대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만의 한국어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지? 대륙의 한국어교육에 대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대만이 한국어교육에서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교재는 어떤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참고서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안의 한국어교육연구의 교류는 절실히 필요하며,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질적이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 2, 양안 한국어교육연구 교류의 형식 및 방안

양안의 한국어교육연구 교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학자교류이다. 학자교류는 학회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는 대륙대학교와 대만 대학교 간의 자매결연 관계에 따라 상호간 학자들을 장·단기 적으로 상대방 대학교에 파견하여 학술 및 강의 교류를 진행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상호간의 학술이나 학문을 상호교류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둘째, 학술교류이다. 학술교류는 주로 상호간 학술세미나 때나 워크숍 때 상대방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을 지금도 간혹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을 같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술대회 때 상대방의 학자들을 몇 명 초청하여 참가시키는데 그치고 있지만 일단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려면 지금의 형식 외에도 양안의 학자들 따로 모여서 전문주제에 대한 학술교류도 조직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 및 참고서 교류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학습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간 대륙과 대만은 각기

자체로 학습 자료나 참고서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겠지만 상호간의 교류가 없는 까닭에 서로 잘 모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자료란 주로 교재를 놓고 말하며, 참고서란 학습용 참고서와 교수용 참고서가 망라된 것을 말한다. 일단 이러한 교류관계가 설립이 되면 이왕에 개발한 교재나 참고서는 물론 앞으로 개발할 교재나 참고서 등도 교류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료, 참고서 공동개발. 교류관계가 설립이 되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필요한 교재나 참고서 등도 개발할 수 있다.

다섯째, 쌍방의 협상으로 양안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나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함으로써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 수가 있다.

### 3, 양안 한국어교육연구 교류의 기본 원칙

양안의 교류가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류에 필요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1) 양안의 한국어교육연구교류는 민간적인 학술교류로서 양안 최고지도자들의 합의한 제반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안의 한국어 교육연구교류는 상호간의 신뢰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역과 연구수준,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상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가 교류를 진행하자면 의견충돌이나 견해상의 차이를 피면할 수 없다. 교류를 더욱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 그리고 관점들에 대하여 우선 상호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내부의 갈등이나 모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모순이나 갈등이란 어느 쪽에서나 다 있기 마련인데 자칫 상대방의 이러한 갈등과 모순에 개입하면 정력과 시간만 낭비할 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대륙과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상호 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자기들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교류의 효과를 높일수 있다.

결론:

위에서 우리는 양안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으로부터 양안한국어교육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류의 형식 및 방안,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어교육이란 학습자대상에 따라 교재도 달라야하거니와 교수법도 달라야 한다. 대륙의 한국어교육과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다 같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실제 교육에서 부딪치는 문제로부터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공통된 언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안 간 한국어교육연구의 교류는 상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교류의 형식이나 방안 및 그 원칙은 대륙의 한국어 교육상황에 비추어 작성한 것인 만큼 더러는 대만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형식이나 방안은 대만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본 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